

KIA '고졸 루키' 김태형 "1군서 보여주겠다"



프로 첫 등록 "오고 싶었다... 믿음을 주는 투수 될 것" 이범호 감독 "투수 한 자리 '미래' 생각하며 운영"

'아기 호랑이' 김태형의 프로 도전기가 시작했다. KIA 타이거즈가 11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엔트리에 변화를 줬다. 전날 경기에서 제구 난조를 겪은 홍원빈을 말소한 KIA는 '고졸 루키' 김태형을 콜업했다.

2025 신인드래프트에서 KIA 1라운드 지명을 받은 김태형의 프로 첫 등록이다.

광주출신으로 덕수고를 졸업한 김태형은 150km의 빠른 공을 바탕으로 커브, 슬라이더, 스플리터 등의 변화구를 구사하는 우완이다. 마무리캠프에서부터 신인답지 않은 멘탈로 주목을 받은 김태형은 스프링캠프에 참가한 유일한 신인 선수이기도 하다.

이범호 감독은 "능력을 가진 선수다. 퓨처스에만 있는 것보다 1군에 올려줘서 역할을 맡기면 잘 던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퓨처스리그에서 좋아지는 단계라고 들었다. 안타 맞고, 볼넷 주고 이런 건 신인이니까 당연하다. 1군 와서 어떻게 던지는 지 보고 싶었다"고 김태형의 콜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범호 감독과 KIA가 바라는 모습은 '제2의 성영탁'이다.

KIA의 2년 차 성영탁은 지난 5월 20일 처음 1군에 등록됐고 현재는 불펜의 새 전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7년 차 홍원빈을 불러 두 차례 피칭을 지켜봤던 이범호 감독은 투수 '한 자리'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운영할 방침이다.

이범호 감독은 "홍원빈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올라왔을 때 긴장하는 모습은 덜 했던 것 같다. 잘 던지고자 하는 것도 있어 보였다. 퓨처스 내려가서 던지는 것도 보겠다"며 "태형이도 보고 퓨처스에서 추천하는 선수 있으면 볼 생각이다. 잘 던져주면 길게 갈 수도 있다. 성영탁도 그런 역할로 했는데 그 타이밍에 잘 던지면서 좋아졌다. 태형이한테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고 신인의 씩씩한 피칭을 기대했다.

1군 등록 소원을 이룬 김태형은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김태형은 "1군에 너무 오고 싶어서 바라고 있었다. 퓨처스 선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콜업이 돼서

너무 좋았다. 던질 준비는 돼 있다. 내 전력을 보여주 때가 된 것 같다. 최선을 다해 던지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퓨처스 무대에서 시즌 초반 프로의 높은 벽을 실감했던 김태형은 경험을 통해 프로 데뷔 준비는 끝났다.

김태형은 "불붙 안 하고 적극적으로 하면서 좋아졌다. 커브가 잘 안됐었는데 커브가 괜찮아졌다. 타이밍 뺏기용으로 커브도 던지고 골고루 던지면 될 것 같다. 지금 부족하지만 계속 좋아지고 있다"며 "또 많은 관중 앞에서 하면 아드레날린도 나오고 더 좋은 구위로 더 잘 던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또 "아직 신인이지만 꾸준히 던져서 믿음직한 투수가 되고 싶다. 1군에도 오래 있고 싶다. 처음에는 여유 있는 상황에 나가고 그러겠지만 점점 타이틀 한 상황에서도 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태형과 호흡을 맞추게 될 포수 한준수는 "자신 있는 피칭"을 주문했다.

한준수는 "태형이가 잘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당연히 경험이 없으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겨내면 좋겠다. 안 될 때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연연하지 않으면서 이겨내면 좋겠다. 싸움닭이 되면 좋겠다"고 신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고졸 루키' 김태형이 11일 삼성과의 홈경기에 앞서 1군에 등록됐다. 입단 후 처음 콜업된 김태형이 프로 데뷔를 앞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시즌 3호 3루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10일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 필드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에서 1회에 3루타를 친 후 더그아웃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트넘과 계약 1년 남아... 기다리는 계답"

손흥민 '사우디 이적설'에 말 아껴

한국 축구대표팀의 주장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EPL) 토트넘의 캡틴인 손흥민은 다음 시즌 거취에 대해 말을 아꼈다.

손흥민은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쿠웨이트와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10차전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아직 (토트넘과) 계약 1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는 기다려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흥민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적한다는 루머는 현지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손흥민이 토트넘과 맺은 계약이 내년 여름이면 만료되는 상황에서 사우디 프로리그가 손흥민을 영입해 아시아 시장으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토트넘 입장에서 손흥민을 팔아 이적료를 남길 수 있는 적기는 올여름이다.

"기자님들도, 팬들도, 나도 상당히 궁금하다"는 손흥민은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 온 선수라는 건 변함없다"고 밝혔다.

'캡틴' 손흥민은 어린 선수들의 활약에 뿌듯함을



감추지 않았다.

손흥민은 "어린 선수들이 주눅 들지 않고 자기만의 플레이를 펼쳤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해줘서 자랑스럽고 대견했다"고 칭찬했다.

이날 쿠웨이트를 상대로 4-0 대승을 거둔 한국은 2·3차 예선에서 11승 5무를 기록하며 16년 만에 무패로 월드컵 본선으로 향하게 됐다.

손흥민은 "모든 분이 한국은 아시아에서 당연히, 쉽게 월드컵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쉬운 건 없더라"라며 "무패 월드컵행은 나도 처음인 것 같은데, 2차 예선부터 3차 예선까지 온 모든 선수에게 공을 돌리고 싶다. 모든 선수가 한마음 한뜻으로 절대 지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

주겠다는 마음으로 임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게 됐다.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충분히 칭찬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발 부상이 깊어지면서 시즌 막바지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손흥민은 대표팀에서도 9차전 이라크 원정 출전 선수 명단에서 빠졌고, 이날은 후반 30분 오연규(헝크)의 교체 선수로 약 15분만 뛰었다.

골키퍼 이운재(133경기)를 제치고 한국 축구 A매치 최다 출전 부문 단독 3위(134경기)로 올라선 손흥민은 "100%의 컨디션이 아니지만 축구 팬들께 인사드리고 싶었다. 무리해서 하는 경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기 그럭저럭"이라며 "이제 시즌이 끝났으니 잘 쉬어서 팬들께서 좋아하시는 모습,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이야기했다.

토트넘이 리그에서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에서는 우승 트로피를 든 손흥민은 "축구를 하면서 원하고자 했던, 꿈을 꿔던 건 다 이뤄졌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축구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고, 승자만 기억된다"며 "이번 시즌이 쉽지 않았지만 어렵게 때부터 쫓았던 우승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한 해였다. 많이 응원해주신 팬분들과 내가 좋아하는 순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우승상금 1708억원... '클럽 스타워즈' 개봉 박두

FIFA 클럽월드컵 15일 개막 개최국 美 등 6개 대륙 32개 클럽 이강인·김민재 출격 준비 완료

6개 대륙을 대표하는 32개 축구 클럽(아시아 4팀·아프리카 4팀·북중미 4팀·남미 6팀·오세아니아 1팀·유럽 12팀·개최국 미국 1팀)이 1억2500만 달러(약 1708억원)의 균집 나는 우승 상금을 놓고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6월 15일~7월 14일·미국)에서 자존심 싸움에 나선다.

21회째를 맞는 2025 FIFA 클럽월드컵이 한국 시간 15일 오전 9시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가든스의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알아흘리(이집트)와 인터 마이애미 CF(미국)의 조별리그 A조 1차전 '개막전'을 시작으로 7월 14일 오전 4시 대망의 결승전까지 한 달 동안 펼쳐진다.

◇32개 클럽 참가...우승하면 최대 '1억2500만 달러' 상금

올해 클럽월드컵은 대대적인 변화 속에 펼쳐진다. 출전팀이 32개 팀으로 늘었고, 개최 시기도 매년이 아닌 4년 주기로 바꿨다.

대회 규모가 커지면서 상금 규모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했다. 총상금만 10억 달러(약 1조2660억원)다. 우승 상금은 4000만 달러(약 54억6400만원)인데, 조별리그부터 누적 상금을 포함하면 우승팀은 최대 1억2500만 달러(약 1709억원)까지 쟁길 수 있다.

조별리그 1경기 승리 때마다 200만 달러를 받고, 비기면 100만 달러를 받는다.

16강에 진출하면 750만 달러를 추가로 수령하고, 8강 1312만5000달러, 4강 2100만 달러, 결승

3000만 달러, 우승 4000만 달러에 달하는 돈방석에 앉는다. K리그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울산 HD는 이미 출전 비용으로 955만 달러(약 130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이강인·김민재 출격 준비 완료...시애틀 수비수 김기희도 눈길

올해 클럽월드컵에 참가하는 클럽들의 면모는 말 그대로 '스타워즈'다.

클럽월드컵 최다 우승(5회)을 자랑하는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를 필두로 지난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팀인 바이에른 뮌헨(독일), 프랑스 리그앙 챔피언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강호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 세리에A 강호 인터 밀란과 유벤투스 등 유럽의 강호들이 12개 팀이나 출전한다.

아시아에선 K리그를 대표하는 울산과 일본 J리그의 우라와 레드, 사우디리그 강호 알힐랄, 아랍에미리트의 강자 알아인까지 4개 팀이 출전한다.

울산에 몸담았던 수비수 김기희의 소속팀인 시애틀 사운더스(미국)도 참가한다.

한국 팬들의 시선은 'K리그 챔피언' 울산이 목표로 내건 16강 진출 성공 여부에 쏠린다.

이강인(PSG)과 김민재(뮌헨)도 관심거리다. /연합뉴스